

# 축우 전염병 예방과 치료

여름철 모기가 옮기는 소의 아까바네병, 유행열, 이바라기병 발생주의부를 농촌진흥청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가 있어 게재하니 많은 참고 바랍니다.

— 편집자 주 —

## 소 아까바네병

아까바네병은 모기가 매개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주로 소에서 번식장애를 일으키며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 최초로 발생된 이후 주기적으로 발생하여 양축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.

농촌진흥청 수의과학연구소에서 전국의 소 3,200두를 대상으로 혈청조사 결과 아까바네병의 항체양성율이 28%로 매우 낮은 지역도 있어 아까바네병 발생이 크게 우려되고 있으니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I. 주요증상

- 큰소에는 거의 증상을 보이지 않으나 임신한 소는 유사산, 조산 및 태수과다증을 보이며 때로는 난산등이 발생한다.
- 갓낳은 송아지의 경우 척추가 구부러지고 네다리의 관절과 안면 그리고 머리가 변형되는 등 체형 이상이 발생하고 허약우, 실명등이 나타난다.
- 주로 초임우에서 많이 발생하고 한번 감염된 소는 다시 발생하는 경우가 적다.

### II. 예방대책

- 백신접종(생독백신)  
-접종시기 : 5~6월초

- 접종방법 : 1회 또는 3~4주 간격으로 2회 접종
- 접종대상 : 임신이 가능한 암소
- 보강접종 : 매년 5~6월초 접종

### • 항체양성율에 따른 지역별 예방조치

- 항체양성율 60%이상 지역(경기, 충북, 충남, 전북, 전남, 서울, 인천, 광주, 대전)은 초임우(1~2세)를 중심으로 백신을 접종한다.
- 축사에 방충망 설치와 저독성 살충제 살포 등 모기구제에 만전을 기한다.

## 소 유행열 및 이바라기 병

소 유행열 및 이바라기병은 3~5년 주기로 모기가 바이러스를 매개하여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'88년에 약 5만두, '91년에는 약 3만두가 발생하여 피해를 가져왔습니다. 농촌진흥청 수의과학연구소에서 '95년 전국의 소 3,200두를 대상으로 혈청조사 결과 항체양성율이 유행열 24%, 이바라기병 52%로 낮은 지역 있어 급후 발생이 크게 우려되니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I. 주요증상

### 1. 소 유행열

- 6개월령 이하의 송아지에서는 발병이 적고 비육우나 영양이 좋은 암소에서 심한 증세를 나타내는 급성 열성 전염병이다.
- 갑자기 1~3일간 높은 열이 (41~42℃) 오르고 호흡이 촉박해진다.
- 식욕이 떨어져 사료를 먹지 않고 되새김을 하지 않으며, 심한 설사나 변비를 하는 경우도 있다.
- 목이 아파 침을 삼키지 못해 거품 섞인 침을 많이 흘리고 콧등이 마른다.
- 젖소의 경우 우유 생산량이 급격히 떨어진다.
- 네다리의 관절이 붓고 관절통으로 잘 걷지 못하거나 서있지 못하며, 때론 일어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.

### 2. 이바라기병

- 소에 유행열 바이러스와 이바라기 바이러스가 동시에 감염되면 유행열의 증상이 악화되어 죽는 경우도 있다.
- 열이 오르고 궤양성위염 및 식도근육이 마비되어 사료를 삼키지 못하게 된다.

## II. 예방대책

### 1. 백신접종(소 유행열 및 이바라기)

- 접종시기 : 5~6월초
- 접종방법 : 3~4주 간격으로 2회 접종
- 접종대상 : 1세 이상의 모든 소
- 보강접종 : 매년 5~6월초 접종

### 2. 항체양성율에 따른 지역별 예방조치

#### • 소유행열

- 항체양성율 60% 이상지역(경기, 충북, 충남, 전북, 인천, 광주, 대전)은 신규입식우를 중심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60% 미만지역(강원, 전남, 경북, 경남, 제주)은 1세이상의 모든 소에 백신을 접종한다.

#### • 이바라기병

- 항체양성율과 관계없이 1세 이상의 신규입식우를 중심으로 백신을 접종한다.
- 축사에 방충망 설치와 저독성 살충제 살포 등 모기구제에 만전을 기한다.

**면실, 비트필프, 전지대두**

**면실, 비트필프, 전지대두**

**면실, 비트필프, 전지대두**

**면실, 비트필프, 전지대두**

**지금, 공급중에 있습니다**



문의전화 ☎ (02) 588-7055~6